

## “ 금속노조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 김호규 위원장, 경남지부 복수노조 사업장 현장순회... “복수노조 법 제도 개선 노조가 나서겠다”

금속노조가 복수노조 사업장에 찾아가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듣고, 노조로 단결해 극복하자는 뜻을 전하기 위한 현장순회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올해 복수노조 문제와 구조조정 대응을 우선 과제로 삼고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1월 10일 경남지부 임원, 간부들과 경남지역 복수노조 사업장 현장순회를 벌였다. 노조는 첫 일정으로 지부, 지회 간부들과 삼성테크윈지회 출근 선전전을 벌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출근하는 조합원들에게 노조 배지를 나눠주며 인사를 나눴다. 출근 선전전 뒤 삼성테크윈지회 간부 간담회를 열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삼성중공업이 금속노조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테크윈지회의 투쟁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조합원들과 금속노조라는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정병준 삼성테크윈지회장은 “삼성테크윈지회가 복수노조 사업장이면서 방위산업 사업장이다. 여러 면에서 힘든 여건이다”라며 “삼성테크윈지회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지회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노조 현장순회단은 피엔에스알미늄지회로 자리를 옮겼다. 김호규 위원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금속노조를 지키고 당부했다.



홍희균 피엔에스알미늄지회장은 간담회에서 “노조가 신생 중소기업장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한다”라며 “중소기업장은 노조 사업의 결정과정이나 소통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대공장과 중소기업 사이의 균형을 추구해 산별정신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노조 현장순회단은 두산모트롤지회로 이동해 간부 간담회를 열고 중식 선전전을 벌였다. 두산모트롤지회는 복수노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 조직활동을 벌여 다수노조 지위를 되찾은 상태다. 두산모트롤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해 지회를 교섭과정에서 배제했지만, 지회가 다수노조가 되자 기업노조와 개별교섭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호규 위원장은 “복수노조 관련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법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 노조가 각 정당과 함께 준비하겠다”라며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면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현장을 압도하는 다수노조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법률 대응과 조

직 확대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격려했다.

황상연 두산모트롤지회 노안 부장은 “금속노조가 기업노조와 다른 특성을 만들어야 한다. 산별노조를 만들어 전체 노동자의 사회 경제 지위를 올리자고 했는데 성과를 따져보면 부족하다”라며 “금속노조 사업장이라면 법 제도로 중앙교섭에 참여하도록 하든지, 교섭형태를 바꾸든

지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노조 현장순회단은 함양에 있는 한국정밀기계지회에 찾았다. 김호규 위원장과 현장순회단은 공작기계를 만들고 있는 조합원들과 인사하며 “복수노조 상황에서 금속노조를 지켜줘 고맙다. 계속 함께하자”라고 당부했다.

노조 경남지부 한국정밀기계지회 간부 간담회에서 간부들은 복수노조 상황을 헤쳐가기 위한 대응방향과 기업지부와 지역 중소기업장 사이의 심리 거리를 좁힐 방안, 최저임금 포함 범위에 관한 노조의 대책이 있는지 질문하며 올해 노조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법 제도개선을 해야 하지만,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린다고 똑 떨어질 문제는 아니다. 노조가 적극적으로 법 제도 개선안을 들이밀고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현장에서 차별과 부당노동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법에 기댈 수만 없지만, 법률 대응과정은 자본의 부당함을 알리는 과정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 최저임금 올랐다고 정리해고 시도

금속노조 최저임금 노동자 청와대 앞 기자회견...레이테크, 해고 수순. 정우금속, 상여금 편법 기본급 포함

자본과 사업주들이 새해 최저임금 인상에 극렬하게 저항하는 가운데, 이를 빌미로 노동자를 정리해고하려는 악질사업주가 나타났다.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1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꿈수 규탄, 문재인 정부 편법 중용 중단, 편법 사업장 엄벌 촉구 최저임금노동자 기자회견’을 열어 레이테크와 정우금속 등 사업주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와 편법 적용 사례를 폭로하고,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리벨, 건축지 등 사무용품을 만드는 레이테크는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사회 레이테크분회 조합원 스물한 명이 일하는 포장부를 폐쇄하려 한다. 사측은 작업장 임대계약 만료일인 1월 17일을 앞두고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레이테크분회는 임태수 대표가 최저임금이 오르자 사업장에서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금속노조 조합원만 구조조정을 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레이테크분



회는 “사측은 지난 2년 동안 노동부에서 고용지원금 등을 받으며 노사상생을 외치다 지원금이 끊기고 최저임금이 오르자 해고하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우금속은 새해 최저임금이 오르자 상여금 500% 가운데 300%를 12개월로 나눠 준다고 노동자에게 통보했다. 최저임금 수준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사라지고 총액대비 수십만 원의 임금을 손해 볼 상황이다.

정우금속 사측은 상여금 쪼개기 편법이 주춤하자 노사협의회와 관리자들을 동원해 회유를 시도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경기북

부지역사회 정우금속분회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이 막아내고 있지만 힘겨운 상황이다. 정우금속이 속한 JNS그룹의 능원금속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없어 이 같은 편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정우금속분회는 회사를 키운 노동자들에게 십수 년째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주면서, 노조의 주장은커녕, 대통령이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 취지마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노조 서울지부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무력화와 편법 적용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려는 불순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 서울지부는 1월부터 각 공단과 주요 지역에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와 편법적용 사례를 수집하고, 근로조건 후퇴 방지대책 홍보, 신고, 상담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 “우리는 공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국지엠 비정규 세 지회 총고용 쟁취 결의대회...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카허 카셈 사장 구속하라”

금속노조와 한국지엠 부평, 창원, 군산비정규직지회가 카허 카셈 사장을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발하고,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해고 중단과 총고용 보장”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 창원, 군산비정규직지회는 1월 10일 오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해고 중단, 구조조정 분쇄, 총고용 보장 쟁취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지엠이 경영

악화 책임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일방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지난 1월 1일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65명, 창원공장에서 4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리해고 됐다. 지회는 이번 해고를 본격 구조조정의 신호로 보고 있다.

결의대회에 앞서 금속노조와 부평, 창원, 군산공장 비정규직지회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카허 카셈 한국지엠 사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정규직지회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말단 공정에 정규직을 투입하고, 대법원 판결을 받아 정규직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을 하고 있다”리면서 카허 카셈 사장의 구속 등 처벌을 촉구했다.

한국지엠은 2013년과 2014년에 두 번에 걸쳐 모든 새내해도급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아무 조치 없이 불법파견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